

[신약 속 미로 찾기 7]

“저더러 개라구요?”

권준 목사 / 1998 / 페이지수: 1

마가복음 7장 25절 이하에 보면 귀신들린 딸을 가진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딸에 들린 귀신을 쫓아 주시기를 간청하시는데 그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냉정하였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본성이신 자비로움, 사랑, 긍휼하심 등은 찾아보기도 힘든 발언을 하셨다. 어떻게 예수님께서 개라는 모욕적인 말을 쓰시면서 이방 여인을 쫓아내시려 하셨을까?

먼저 우리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하여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. 한 가지 이유는 그 여인이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딸을 구하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의 결과일 수도 있다. 그러나 다른 이유가 있다면, 그 말이 모욕적인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.

우리는 문서상으로만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매몰차다고 느낄 수 있다. 그러나 같은 말이라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하게 맺혀 있으면서, “당신은 이방인이니 우리 유대인들이 당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유대인인데 저에게 와서 이방인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. 또한 예수님의 말씀의 톤이 거절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용기를 내어 구하라는 의미로 전달되었을 수도 있다.

그렇다면 ‘개’는 무엇을 의미하였을까? 우리 문화권에서도 “개○○”, “개 같은 ○○” 등등은 절대로 상대방을 높여 주는 말이 아니다. 그때 당시에도 들개나,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들, 특별히 부자 집 문 앞에서 거지 나자로의 상처를 핥던 개, 등 이런 종류의 개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환영받는 형용사는 아니다. 그러나 우리도 자녀들을 애칭으로 우리 강아지니 딱 두꺼비니 하며 동물에 비교하며 부르지는 않는가? 그것들은 전혀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며 사랑과 귀여움의 상징어들이다. 예수님이 쓰셨던 단어는 ‘상아래 있는 작은 개’ 즉 집안에서 애완으로 기르는 한 집안 식구와 같은 개를 의미하는 말이다.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는 여인과 만나셨고(26절), 헬라 문화권에서의 작은 강아지는 일종의 애칭이었다.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그 여인은 재치 있게 “주여 울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.”라고 받아 넘김으로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여 그 즉시 딸이 귀신에게서 놀임을 받게 된다.

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정작 우리가 진정 받아야 할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. 또한 본심을 바로 보지 못하고 결과만을 보고 판단할 때도 많다.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한 행동을 오해하여서 불화를 빚는 일도 비일비재하다.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묵상하여 보며,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방인인 내가 세상으로부터 놀임을 받을 수 있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.

* 출처 : 온누리신문